

어린이 책꽂이

▲어린이 수학재전 6권 = 수학의 기본개념들을 재미 있는 동화로 엮은 시리즈. 모아 모아 똑같이 나누어요, 가지 가지 수학극 책을 찾아라, 알쏭 달쏭 왜 다르...

▲우리의 챔피언 대니 =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사냥하는 '밀렵'이라는 소재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동화. 주인공 대니는 밀렵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짜장면 불어오 = '제10회 좋은 어린이책 창작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어린이의 현실, 아픔과 소외, 고민을 생생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중국집 배달원 기삼이의 독특하고 발랄한 생각과 캐릭터가 잘 나타나 있다.

▲동물과 놀아요 =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볼 수 있는 동물백과로, 친숙한 동물부터 이국적인 동물까지 신비하고 다채로운 동물의 세계가 펼쳐진다. 특히 총 161종의 동물들을 서식지별로 분류했으며 생생한 표정이 담긴 사진 등이 수록됐다.

▲윈드겐과 속보이는 X선 = 초등과학의 개념과 원리가 저절로 이해되는 신나는 과학원정대 시리즈. X선의 정체를 밝혀낸 과학자 윈드겐의 삶과 가치관, X선의 과학개념과 원리, 과학실험 등을 재미있게 다뤘다.

'파라오의 저주'는 우연이었다

과학으로 여는 세계 불가사의 이종호 지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13km 떨어진 기자 지역에는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서 있다. 4천500여년 전 건축된 피라미드의 높이는 137m, 바닥 면적은 1만5천700여평(5만2천㎡)에 달한다. 빌딩으로 치면 42층 쯤 되는 높이이다.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은 평균 2천500kg 짜리 230만 개 가량.

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과학으로 여는 세계 불가사의'(전 3권)는 '신과 미지의 수수께끼에 도전한 인간들의 이야기'라는

세계 고대유적지 직접 탐사 발굴 과정·뒷 이야기 설명



스핑크스의 정면 모습과 피라미드.

21세기와 22세기 지구의 역사 다뤄

인류의 미래사 워런 와거 지음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 세계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경쟁적 사회주의의 실패 뒤로 자본주의는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물질 만능시대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 세계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역사속 茶人 50명 흔적 들여다보기

다인기행 정찬주 지음

차를 좋아하고 자주 마신다면 다인(茶人)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자에 의하면 '아니다'. 저자는 다인을 '차를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닌 '차의 성품을 담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차를 좋아하고 자주 마신다면 다인(茶人)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공지영의 '별들의 들관'

누구에게나 별은 있다. 그리고 그 별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지탱해주는 꿈과 같은 것이다. 공지영의 소설 '별들의 들관'은 오래 전에 잃어버렸던 마음속의 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별'과 '들관'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 여섯 편의 연작을 읽다 보면 이상과 현실, 허구와 체험, 과거와 현실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병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처입은 영혼들의 '꿈의 들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소설은 전 남편과 이혼한 여인이 실어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빈 들의 속삭임),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베를린에서 성당의 잡부로 일하고 있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네게 강 같은 평화),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알렸던 독일인 윌트겐 힌츠페터의 이야기(꽃가에 남은 음식) 등 모두 여섯 편의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표제작인 '별들의 들관-베를린 사람들'은 죽은 어머니의 흔적과 상동적인 여동생을 찾아가는 스물 아홉 살된 주인공 수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딸과 가족을 사랑하지만 시대의 격랑에 휩쓸려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아픈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산타이고 데 콤포스텔라' 별들의 들관으로 불리는 독일의 도시... 아니라니컬하게도 어머니가 그 도시에서 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인공 수연은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듣게 된다. 그리고 꿈속에서 별들이 차마쪽으로 쏟아지는 어머니의 꿈이 다름 아닌 자신과 그의 동생 나연을 낳는 꿈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별들의 들관' 연작은 각기 다른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에 의해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의 '허구외적'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 내적 화자가 명백히 작가 공지영이라는 사실과 맞닿아 있게 된다.



박성천 (소설가)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in various areas like 정우동, 한국공인중개사, 매곡부동산, 빛고을랜드, 이룸다운부동산, 럭키공인중개사, 여수지역, 국민공인중개사, and 동화마을.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 location, and property details.